

민주 “사필귀정”·국힘 “유구무언”·우원식 의장 “마침내…”

김건희 구속 정치권 반응

민주 “은폐된 진실 끝까지 규명” 국힘 “수사 공정하게 이뤄지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구속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낸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자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거짓말을 일삼은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이상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파탄 낸 김건희가 차야 할 것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니라 수갑”이라며 “특검은 구속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죄과를 낱알이 밝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3가지뿐이고, 아직 수사의 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간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던 검찰을 겨냥한 비

판도 이어졌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첩벽같은 비호가 없었더라면 김건희의 악행은 일찌감치 드러났을 것”이라며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께 보고드렸다. 미완의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대립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종결한 검찰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마침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적었다. 구체적인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 구속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장 심사서 주요 범죄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증거 인멸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들고, 코미디 같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태균 씨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 하고서는 느닷없이 이와 관련된 증거 인멸이 아니라 엉뚱한 목걸이를 가지고 증거 인멸 유무를 논하는 것이 납득이 가는가”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후퇴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판사들을 비난하며 법원을 압박했다”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발생했던 테러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시도를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 11월 전대 유력… ‘조국 체제’ 복귀 수순

당무위 회의서 현 지도부 임기 단축 의결…전 당원 투표 실시키로

조국혁신당은 13일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이를 승인받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임시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열린 당무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김선진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내년 7월까지로 예정된 현 지도부 임기를 단축함에 따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도 개최하게 됐다.

황 사무총장은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한다”며 “전국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별 전국 대의원 선정, 시도당 개편대회 및 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을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는 의결

을 도왔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 개혁 및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 진보 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 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 정당화를 5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9월은 물리적으로 빠듯하고 10월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이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사면·복권된 조국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위한 수순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 개최 결정은 조 전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은 투표를 통해 당원 추인을 얻은 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최고위에서 결정한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이날 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 노조’라고 되는 듯 ‘플러시알파’가 기존 의혹만큼이나 커지는 양상이다. 수사 시한 연장과 전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확대 개정과 상설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전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가”

민주 최고위 정청래 대표 “아직도 탄핵 부정…정상 정당 돌아오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여제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며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서울의 봄’ 12·12 사태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의 명예가 회복됐다. 어제 김오랑 중령의 유가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김 중령이 전사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면서 “역사는 언제나 올바른 길로 흘러간다”고 평가했다.

또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힘은 강하다. 아직 종식되지 않는 내란의 어둠 역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사제 총기 제작 동영상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불법촬영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한 것에 더하여, 불법촬영물로 지정해 관련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했다.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폐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총기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